

보도시점 2024. 4. 24.(수) 15:30 배포 2024. 4. 24.(수) 14:00

“청년의 일자리가 사회이동성 개선의 출발점, 촘촘하게 지원”

- 최 부총리, 직업계고(세종장영실고등학교),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(국민대학교) 방문
-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「사회이동성 개선방안」에 청년들의 정책 제안 적극 반영

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22일(월) 직업계고등학교(세종장영실고등학교), 4월 24일(수)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(국민대학교)를 방문하여 청년들의 정책 제안을 청취하였다.

< 직업계고등학교(세종장영실고등학교) 현장방문 >

먼저, 4월 22일(월)에는 작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세종장영실고등학교(세종시 소재)를 방문하여 학교 내 직업계고 전공실습 현장을 둘러보고, 학생들과함께 외식조리, 보건간호 실습에 참여하였다. 이어, 재학생과 교직원, 학부모·졸업생 대표를 만나 학생들의 진로·취업, 후속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.

최 부총리는 “직업계고 학생들은 전문분야 인재로 성장하여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갈 미래 주역”이라며 “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입학부터 졸업 이후까지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 노력과 취·창업 지원을 강화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<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(국민대학교) 현장방문 >

이어 4월 24일(수) 국민대학교를 방문한 최 부총리는 미래차사업단을 찾아가 가상환경 주행 시뮬레이터, 학생들이 직접 설계·제작한 자작자동차 등을 체험하고,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취업준비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.

최 부총리는 “최근 청년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여전히 많다.”라고 언급하며, “전국 12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102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미취업 졸업생, 구직 장기화 청년 등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조기 제공하고, 직업훈련과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취업 전 과정에 걸쳐 고도화된 고용서비스를 보다 촘촘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중인 「사회이동성 개선방안」에 포함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아울러 “미래세대인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사회이동성 개선의 출발점”임을 강조하면서, “최근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청년들과 자주 만나 그들의 고민과 아이디어를 직접 듣고 있다.”라며 “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좋은 정책으로 가다듬어 청년들의 도전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	책임자	과 장	조성중 (044-215-8530)
		담당자	사무관	박성준 (bbakko0@korea.kr)
	경제구조개혁국 청년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은영 (044-215-8580)
		담당자	사무관	송기선 (steamship@korea.kr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